
THE NOTHING I NEEDED
FERDINANDO FREGA

내게 필요했던 무(無)

THE FAMILY · 15

아내 Elisabetta는 딸 Giorgia와 함께, 그리고 자기 남동생 Michele과 그의 아내 Cinzia와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시칠리아에 있는 사촌의 집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닷새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생각이었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나기 전, 그들은 한때 나폴리에 여자 친구가 있어서 그곳 개들의 억양을 배워 온 나의 아메리칸 래브라도를 돌볼 책임 말고도, 식료품 창고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꼭 일러두었다. 그들은 또 하루하루의 추가 지출에 쓰라고 50유로를 남겼고, 돌아왔을 때 집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기를, 가정의 재난 지역처럼 보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날마다 그들은 전화했다. 두 사람 다 개를 걱정했다. 밥은 먹었나? 물은 충분히 마셨나? 산책은 나갔나? 볼일은 봤나? 친구는 만났나?

어느 순간 나는 그들에게 개한테 직접 전화해서, 불만까지 포함해 질문에 그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라고 제안했다.

나로 말하자면, 이따금 아내에게서 차분한 질문 하나를 받을 뿐이었다.

"밥은 먹었어?"

그러면 나는 똑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여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이 왔다.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들은 집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티끌 하나 없었다. 부엌은 흠잡을 데 없었다. 접시 하나도 제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다시 밖으로 나가 복도에 서서, 혹시 다른 집에 들어온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카라비니에리 고위 장교의 딸인 처남댁은 범행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캐물으면서도 나를 칭찬했다.

모두가 특수 효과는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우리는 부엌 식탁에 둘러앉았고, 그들은 내가 50유로를 손에 들고 돌려주려고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은 단 한마디 없이 대화 하나를 통째로 나누었다.

질문은 곧바로 나왔다.

"밥 안 먹었어?"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먹었지, 고마워.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은.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사는 데는 무(無)로 충분했어. 그게 내게 필요한 전부였지."

나는 미소 짓고 혼자 산책을 나갔다.

성공은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이스크림과 같다. 모두가 저마다 자기 입안에서 그 맛을 알아본다, 모두에게 같은 맛일 때조차.

Ferdinando Frega
Gillette Man ⚔️